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1년도 표어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행동지침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인 : 박노철 발행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마태복음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의 복

(마 5:3-12)

The Blessing of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Matt. 5:3-12)

예수님은 팔복의 마지막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너무도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박해는 자신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 의를 위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세상에서의 의의 기준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의가 되는 것이, 다른 이에게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의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의”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자라야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At the end of the eighth blessing in the Sermon of Mount, Jesus Christ tells us that those who are persecuted are blessed, but it is not easy for us to understand. And yet, the persecution that Jesus speaks of means that they are not persecuted by their own misfortune or deficiency but entirely because of Jesus Christ and righteousness.

It is difficult to say what our standard for righteousness should be in the world. What is right for some, is not for others. However, the righteousness of God is absolute.

The “righteousness” in the text means Jesus Himself. Therefore, it is said that only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are blessed.

1. The persecution for righteousness

At the time of the early church, there was a time when Romans who were controlled by Emperor Nero cruelly persecuted Christians. Because of only one reason, the fact that they believed in Jesus Christ, tens of thousands of Christians became prey to this ruler, and even some were killed in a most gruesome way: their skin being peeled off their bodies. Some of them were immersed in oil and were punished to death as human torches to light up the stadium at night. At the time of Martin Luther’s reformation, one hundred thousand protestant saints in France, twenty thousand in Poland, and approximately three hundred in England, were burnt to death. Owing to the sole reason of their persecution and death, they believed in Jesus Christ. If they had denied Jesus Christ just once, they would not have been punished. However, they were persecuted for righteousness due to the martyrdom of suffering and death that they had chosen.

2. When we are persecuted

Jesus is the one who was severely persecuted, but He did not retaliate against anyone. He even prayed and blessed them, “Forgive their sins.” He is qualified to assert His legitimacy, and He had the power to retaliate against anyone. If He wanted to do that, He would have mobilized the heaven’s army and angels of more than 12 legions to suppress His enemy. When we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we should be calm like Jesus Christ. Of course, it is not easy to be calm. However, in the midst of God’s covenant, we must remember that no matter how severely we are persecuted, those who do not retaliate and curse will receive great blessings.

“In this world you will have trouble. But take heart! I have overcome the world” (John 16:33).

Jesus didn’t say, “You may have trouble.” He said, “You will have trouble.” However, take heart. Jesus overcame the world.

3. The blessing of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Those who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righteousness will possess heaven. Jesus’ eight blessings of the Sermon on the Mount start with,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And it ends with, “Blessed are those who are persecuted, because of righteousness,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The life in heaven is an integration of all happiness. The Kingdom of God is the time and space of the complete, absolute, and sovereign reality of God.

My beloved Christians!

When we are persecuted for the sake of Jesus Christ, we must bear its suffering with happiness. By possessing the Kingdom of God, attending our Lord Jesus Christ and living a heaven’s life, in the worl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enjoy the happiness in the name of Jesus Christ.

1. 의를 위한 핍박

초대 교회 시대 네로 황제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진 잔인한 박해의 시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수 천, 수만의 성도들이 사자 밧이 되기도 하고, 살가죽이 벗겨져 죽기도 했으며, 어떤 성도들은 몸에 기름을 부어 야간 경기장에 불을 밝히는 인간 횃불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도 불란서에서는 10만 명의 신교도들을, 화란에서는 2만 명을, 영국에서는 300명에 가까운 신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하면 살 수도 있었던 순간에,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선택한 순교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2. 핍박 받을 때

의를 위하여 가장 큰 핍박을 당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거나 보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원하셨다면 12명이나 더 되는 천군천사들을 동원해 일시에 그 원수들을 제압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핍박 받을 때 예수님처럼 잠잠해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박해당하면서도 보복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에게는 너무도 큰 축복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담대하십시오.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3.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가 받을 복

의를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핍박 받는 자 역시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생활을 하는 것은 모든 행복의 집약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이 온전히 행사되는 시간과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 받을 때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어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을 모시고 천국생활하며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2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예배 은혜중에 드러

지난 주일 박노철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와 위임식이 있었다. 1부 감사 예배에서 이종운 원로 목사는 “목자같이 인도하시리라”는 제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온 성도들을 인도하실터이니 성령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순종하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당부하였다.

최성욱 노회장의 집례로 진행된 2부 위임 예식에서는 이종운 은무리교회 담임 목사가 박노철 목사에게 장로교의 정통성을 잘 이어가기를, 권용평 서울베다니교회 원로 목사는 교우들에게 박노철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며 협력하기를 권면 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인웅 덕수교회 담임 목사의 축사로 위임 예식을 마쳤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30]

(문 27) 그두라는 아브라함의 후처(두 번째 아내)였습니까(창25:10) 아니면 그의 첩(소실)이었나요(대상1:32)?

(답) : 창25:1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후 아브라함이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그의 노년기에 그두라를 통해 6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37세 때 사라 나이 127세 때 그녀를 잃었는데(창23:1, 17:17) 얼마나 빨리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했는지에 대하여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두라를 통해 낳은 6명의 아들들은 여러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기에 그두라는 오늘날까지도 아랍인들의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상 1:32에서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소실(첩)이라 한 것은 창25:6에서도 그두라가 낳은 자식들을 서자라 한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 이삭이 상속자임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6)

그러나 소실(첩)들(복수형)의 아들들이라 한 것은 그두라 뿐만 아니라 하갈까지도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하갈과 그두라의 자식들에게 이삭을 떠나 동쪽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창25:6)

분명히 소실이라는 말은 비록 그두라가 아브라함의 합법적 아내이기는 하지만 이삭의 어머니 사라와의 관계에서 보면 그두라는 두 번째 부인임에 틀림없는 고로 소실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일한 상속자는 언약의 아들 이삭뿐이기 때문입니다.

소실이라는 말 자체는 그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셈족의 말은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 아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두라를 소실(첩) 또는 후처(두 번째 아내)로 부른 것은 성경의 과오가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아들 개념을 부각시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주 계속)



위임예식 후 당회원들과 함께



설교하신 이종운 원로목사님



원로목사님 내외와 함께



최성욱 노회장의 위임목사배 중정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

네 목자는 사랑의 왕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목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즈음하여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가 두 번째 정기연주회를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 대치동 새 예배당 입당과 함께 창단된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는 소집장처럼 시작하였지만 이제는 국내외 어느 무대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의 프로에 가까운 콰이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간 핸드벨 찬양을 위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이들의 수고가 모인 값진 열매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2008년, 국내 핸드벨 연주에 독보적인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송재월 선생님을 만난 것은 참으로 행운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주님이 예비하신 만남이었겠지요. 송재월 선생님과 더불어 하는 3년 동안 서울교회 핸드벨은 급성장하였고, 이제는 그리스 핸드벨 콰이어가 서울교회 이름에 걸맞는 성숙한 찬양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리는 이번 핸드벨 찬양(12월 11일 주일 찬양예배 시)을 서울교회 온 성도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모두 오시어 함께 찬양하시며 기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Soli deo Gloria!

새해 목회 정책 발표회

12월 9일(금) 오후 1시 802호

2012년 서울교회 모든 살림을 점검하는 목회 정책 발표회가 오는 금요일 오후 1시부터 802호에서 열린다.

고등부 Calling

12월 17일(토) 오후 5시 30분

고등부는 오는 12월 17일 오후 5시 30분 웨스트트민스터홀에서 친구초청잔치를 한다. 전도 대상자와 잃은양, 그리고 교회는 나오나 고등부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을 위한 이번 행사는 고등부 찬양팀인 NLC의 은혜로운 찬양이 함께하며 고등부학생들이 직접 만든 영화 등을 상영한다.

성도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서희숙 권사의 지휘로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문구영곡)”, “주를 따른 여인들 처럼(김명희곡)”, “거룩한 성(S.Adams곡)”의 세곡을 김윤지 성도의 오르간과 홍혜란 성도의 피아노 반주로 하나님께 찬양드린다.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박민선 (중등부)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 취임하게 되신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교회는 이종운 목사님의 지도 아래 많이 부흥하였고 많은 교회 중에서도 다른 교회를 섬기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박노철 목사님께서 그 뒤를 이어 책임감을 가지시고 사명을 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중등부 수련회 때마다 빠지지 않으시고 참석하셔서 보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달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깨우침을 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위임목사님이 되셔서 더 힘드실지라도 항상 웃는 얼굴로 저희 다음세대들을 대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서울교회를 위해 애쓰시고 기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우리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사역을 위해 노력하시고 힘쓰시는 박노철 목사님! 서울교회 위임목사님이 되신 것을 저희 중등부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오원근 (대학부)

청년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2009년 6월 홍해작전에서 처음으로 박노철 목사님 설교를 듣고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첫날의 감동이 제 발걸음을 매일 새벽마다 교회로 이끌어 주었고, 2009년의 홍해를 완전히 건널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처음 박노철 목사님께서 저희 서울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홍해작전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목사님 설교를 매 주마다 예배시간에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서울교회 2대 담임목사님으로 위임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청년을 사랑하시는 목사님! 다수의 대학부 청년들은 말합니다. 대학부에 교제와 나눔이 있긴 하지만 긴밀한 교제와 나눔이 없다고. 2012년 대학부 목표로 [사랑이 넘치는 대학부]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만큼 대학부에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학부에 사랑이 넘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대학부에는 목사님의 큰 도움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목사님의 인도아래 사랑이 넘치고 진실한 교제와 참된 나눔이 있는 대학부가 되길 소원합니다. 저희 대학부 뿐 아니라 서울교회는 새로운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변화될 교회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만들어 가실 새로운 대학부의 큰 부흥을 기대합니다.

제연주 (고등부)

다음 세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박노철 목사님께서 우리 서울교회의 새 위임목사님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항상 저의 영적인 밑거름이 되는 설교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면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쳐있던 제 마음이 신선한 에너지로 채워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 만큼 목사님의 주일 설교는 또다시 새로운 한 주를 맞는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사실 고등부 학생들은 흔히 '입시 전쟁'이라 불리는 환경 속에 살면서 믿음을 유지하기가 힘이 듭니다. 학원 시간표는 자꾸 주일 오전에 생기고, 다른 친구들이 공부할 시간에 교회 가면 시간이 낭비될 거라는 주위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움을 겪을수록, 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것이기에, 저와 고등부 학생들은 목사님의 설교를 더 열심히 귀담아 들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어느새 제 마음에 하나님의 참된 뜻이 들어온다는 것이 느껴지고, 마음은 따뜻해집니다.

매 주일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마음가짐과 자세들을 하나씩 배워나가면서 저는 제 스스로가 세상으로부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걸음씩 하나님께로 다가가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목사님, 이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전달해주셔서 목사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리고 다른 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입시 전쟁'이라 불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게 고등부 학생들을 말씀으로 꼭 붙잡아 주세요. 다시 한 번 목사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며 저와 고등부 학생 모두는 든든한 교회의 다음 세대로 성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성우 (청년2부)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박노철 목사님처럼 좋으신 목사님을 서울교회에 보내주시고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 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신 것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말씀 전하실 때마다 느껴졌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도록 자신을 감추시는 겸손한 마음까지,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의 모습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기에, 청년 사역에 관심이 많으신 박노철 목사님께 많은 기대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이끄는 선두에 있는 저희 청년들이

만 아직은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의 때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어, 다음 세대로서 부끄럽지 않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지도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목사님의 위임 첫 해인 2012년, 가장 기분이 되는 예배의 회복을 통해 더욱 튼튼한 믿음을 생활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적으로 교회의 허리가 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으신 목사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울교회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실 목사님을 위해 열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김나영 (청년1부)

목자로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서울교회의 담임목사님으로 위임받으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찬양하시는 모습이 아이같이 순수하시고, 때로는 한없이 인자하신 아버지처럼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게 권면하시며 교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뵈며 청년들 이상으로 열정적인 것 같아 목사님을 저희 목자로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귀한 서울교회를 짊어지고 나

갈 다음 세대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청년의 때에 더욱 깨어서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훈련, 뜨겁게 찬양하고 청년부의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비전들을 목사님과 함께 꿈꾸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서울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단·사이비 무엇이 문제인가?

다음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단사 이비대책위원회' (<http://www.pck.or.kr>)에서 제공한 자료에서 발췌한 것이다.

<편집자 주>

1. 이단·사이비란 무엇인가?

이단은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 이를 가리켜 이단이라 하며, 사이비는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교리에 부수되는 주요한 교리를 부인하거나 왜곡하여 가르치는 경우 사이비라 한다.

2. 이단·사이비는 정통교회와 무엇이 다른가?

- 1) 사람을 신격화한다.
- 2) 성경 이외의 경전을 가지고 있거나, 비성경적인 계시를 강조한다.
- 3) 자신들만이 구원받는다는 배타적인 구원관을 강조한다.
- 4) 특정한 시기의 종말을 강조한다.
- 5) 기성교회와 목회자를 지나치게 비판한다.
- 6) 불신자들보다 신자를 주로 미혹한다.
- 7)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신자들을 미혹한다.
- 8)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기도 한다.

3. 주요 이단·사이비 단체

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교회)

- ① 대표자: 신천지교회 설립자 이만희
- ② 경전: 『계시록의 진상』 『신탄』 등의 교리서.
- ③ 주요주장: 이만희를 보혜사로 신격화하며, 신천지교회의 교리는 모세와 예수시대에도 밝혀지지 않았던 천국 비밀이라고 주장.
- ④ 포교방법: 교회에 비밀리에 침투하여 포교하거나 거리 등지에서 설문조사를 내세워 접근한다.
- ⑤ 문제점: 교주 신격화, 가정 파탄
- ⑥ 총회 결의: 1995년 "계시론, 신론, 기록론, 구원론, 종말론"에 나타난 문제들로 인해 이단으로 규정.

2) 하나님의 교회 세계선교협회(안상홍증인회)

- ① 대표자: 1985년에 사망한 설립자 안상홍
- ② 경전: 『하나님의 비밀과 생명의 샘』 『천사세계에서 온 손님들』 『최후의 재앙과 하나님의 인』 『모세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율법』 『선약과 복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해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등의 교리서.
- ③ 주요주장: 하나님의 교회 정관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 안상홍님의 이름과 성령 하나님의 신부되신 어머니 하나님(장길자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진리를 믿는다"고 되어 있다.

④ 포교방법: 활발한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의 공신력을 얻고 있다. 해외에도 진출하고 있으며, 각지에 '셋별 선교원'을 운영하면서 지역 아동에게 접근하고 있다. 거리 등지에서 성탄절과 유월절에 대한 설문조사를 내세워 접근하기도 한다.

- ⑤ 문제점: 교주 신격화, 가정 파탄, 2012년 종말 주장.
- ⑥ 총회 결의: 2002년 "교리적 탈선, 성경해석의 오류, 왜곡된 구원관"을 이유로 '반기독교적 이단'으로 규정.

3) 구원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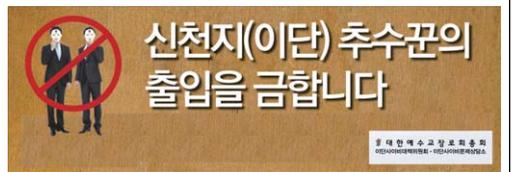
- ① 대표자: 구원파는 권신찬과 유병언의 '기독교복음침례회', 이요한의 '대한예수교침례회',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 등 세 개의 분파로 이루어져 있다.
- ② 경전: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종교에서의 해방』, 대한예수교침례회는 월간 『생명의 빛』, 기쁜소식선교회는 『죄 사함 거둬달라』 등의 교리서를 사용.
- ③ 주요주장: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며, 기성교회에는 구원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 반복적인 회개를 부인하여 주기도문을 거부한다.
- ④ 포교방법: 공신력 있는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이용한다. 박옥수 구원파의 경우 IYF(International Youth Fellowship)을 통해 대학가에서 활발한 포교활동을 하고 있다.
- ⑤ 문제점: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고 주장.
- ⑥ 총회 결의: 1997년 "구원, 회개, 죄인, 시한부적 종말론"에 관련된 문제로 이단으로 규정.

4) 세계복음화전도협회(다락방전도운동)

- ① 대표자: 류광수
- ② 경전: 성경을 마귀와 연관지어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다.
- ③ 주요주장: 전도가 영적문제, 우상문제, 정신문제, 질병문제, 내세문제, 종교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고 주장하며, 기성교회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④ 포교방법: 학교와 직장 등에서 다락방성경공부 모임을 만들어 미혹하거나 국내외에서 렘넌트(Remnant)대회를 열어 포교활동을 한다.
- ⑤ 문제점: 다락방전도운동을 통해 국내외의 기성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⑥ 총회 결의: 1996년 "마귀론, 기성교회 부정적 비판, 다락방식 영접" 등의 문제들로 인해 사이비성이 있다고 규정.

4. 이단·사이비 대처 방법

- 1)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앙의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



- 2)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목자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단에 대처할 수 있다.
- 3) 가정을 신앙 안에 든든히 지켜야 한다.
- 4) 교회내적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사랑의 신앙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 5) 교회외적으로 지역교회들과 초교파적인 이단대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단사이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공동대처해야 한다.
- 6) 목회자가 모르는 외부에서의 성경공부모임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참석해야 할 때에는 목회자와 상담한다.
- 7) 이단사이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면, 인터넷 검색에 의존하기 보다는 공신력 있는 이단연구기관을 통해 자료를 얻어야 한다.
- 8) 이단사이비 단체들은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www.hdjongkyo.co.kr을 참조하여 이단사이비 사업체나 제품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월 4일(주) 시흥교회에서 찬양예배 설교를 한다. 12월 5일(월)~6일(화) 필그림동지회(서울교회 전 부목사 모임)를 주관한다.
- 특남: 12교구 감성주성도 한주회 성도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12.4) 뱀뱀전도회(12.11)
- 금주의 식사: 박노철 목사 김은경 사모 가정 (위임 감사)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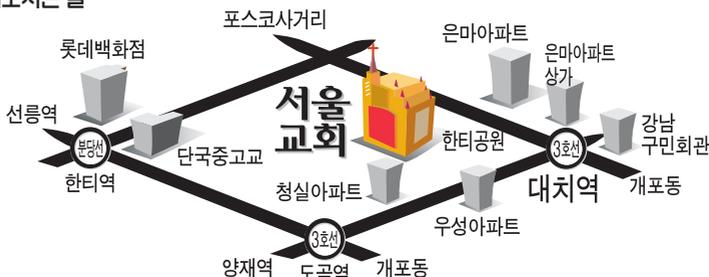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창립 20주년과 위임감사를 통해 교회가 더욱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부흥의 새날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도록
2. 연말에 계획되어 있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며 각 부서의 크리스마스 축제 준비가 기쁨 가운데 이뤄질 수 있도록
3. 한국교회에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가 사라져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어지럽게 하지 못하게 하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 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